불교전문사전 편찬 꾸준

'한국사찰' '선시감상' '불교전적' 등 곧 출간

90년대 불교사·설화·불전해설등 다양화 추세

출판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사전편찬은 해당분야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 결과물이며 동시에 학술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지난해 9월 불지사의 〈선학사전〉 출간에 연이어 불교관련 사전의 편찬작업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불교학 기반 조성과 불교문화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시대사와 현암사가 4, 5월경 〈한국사찰사전〉과 〈선시감상사전〉의 출간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이 〈불교대사전〉 제1권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 〈불교전적(典籍)사전〉과 영문판〈한국불교문화사전〉을, 불지사가 〈불교비유예화사전〉의 출간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불교관련 사전 목록

사 전 명	편·저자	출판사(연도)
불교사전	운 허	동국역경원(61)
한국사찰사전	권 상 로	이화문화사(62)
불교대전	한용운/이원섭	현암사(80)
한국불교대사전	편찬위원회	명문당(82)
불교학대사전	편 집 부	홍법원(88)
불전해설사전	정 승 석	민족사(89)
불교실화대사전	한 정 섭	이화문화사(91)
한국불교사학대사전	조 명 기	보련각(91)
선법용어사전	오 인	성법원(92)
불교상식백과	홍 사 성	불교시대사(93)
한국불교인명사전	이 정	불교시대사(93)
불교용어바르게읽기	안 길 모	길출판사(93)
빠알리어사전	진 재 성	한국불교대학(94)
화엄경소사전	무 비	민족사(94)
선학사전	편찬위원회	불지사(95)
힌디(인도)한국어사전	편찬위원회	외대출판부(96)

불교시대사의 〈한국사찰사전〉(이정 편저)은 1910년이전에 창건된 7천여 전통사찰을 표제어로 수록해 소재지 및 소속종단, 연혁, 사찰에 얽힌 설화, 문화재, 주석했던 고승 등을 내용으로 싣는다. 도별 색인과 문화재 일람을 부록으로 구성, 이용에 편리를 기하고 북한소재 사암과 주요 폐사지도 소개한다.

지현스님이 6년의 작업끝에 출간하는 〈선시감상사전〉은 한국 1천3백여편, 중국 1백50여편, 일본 1백여편의 선시를 총정리했다. 선시 한편 한편마다 친절한 해석과 주해(註解)를 곁들인 스님의 감상문도 들어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오는 98년 완간을 목표로 지난 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교대사전〉 편찬은 올 하반기에 첫 결실로 제1권(약 2만2천항목)을 선보인다. 전 10권이 완간되면 한국 인도 중국 티벳 남방 일본불교 불교일반을 망라한 20여만 항목의 표제어를 싣게 된다.

불교문화연구원도 2종의 사전편찬을 준비중이다. 이미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불교전적사전〉은 우리나라의 불교전적을 총망라해 체계적인 해제(解題)와 서지정보를 담게 된다. 7천여 표제어를 싣게 되는 영문판〈한국불교문화사전〉도 한글판 저본을 완성하고 80%정도 번역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의 선불교 전문사전인 〈선학사전〉을 출간한 불지사는 〈불교비유예화사전〉의 번역을 끝내고 출간시점을 관망하고 있다.

1961년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사전〉(운허스님 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나온 불교관련 사전은 모두 16여종 〈도표참조〉. 대부분 80년대 후반부터 쏟아져 나온 불교사전들은 90년대부터 불교사학, 선학, 불교설화, 빠알리어, 불전해설 등 부문별·주제별 편찬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과 시간, 인력이 요구되는 불교사전의 편찬은 불교학 연구성과와 불교출판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중요한 공익 문화사업이라는 점에서 종단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보광사 운영보고서 공개

'화두와 실천' 2호 발간

실천불교승가회(의장 지선·청화)의 근본도량인 파주 보광사가 사찰 운영보고서를 발표, 관심을 모았다.

이 보고서는 94년 조계종 개혁 성사에 크게 역할한 단체의 하나인 실천불교승가회가 직접 운영하는 보광사의 총 수입 지출을 공개한 것.

이같은 자료는 최근 실천불교승가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화두와 실천〉 제2호에 실렸다.

〈화두와 실천〉 제2호에는 특별기고로 법성스님의 '미래사회와 불교', 기획시리즈로 홍윤식교수의 '불교문화재의 올바른 이해와 보존방향'을 조명했다.

기획 문화비평은 김재홍교수(경희대)의 '1995년 불교문학의 한 점검' 정재형교수(동국대)의 '영화감상과 독해 방법론' 유일상교수(건국대)의 '진정 언론은 알권리에 충실했는가' 등을 실었다.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저자 김 정 빈(글) 최 병 용(그림)씨

"깨달음세계 형상화 작업 심혈" 김

"부처님·고승 표정 신경썼어요" 최

"3년전 부처님 평전인 〈깨달음의 향기〉와 〈법구경〉을 쓰면서 근본불교의 신선한 아름다움에 매료됐지요. 그후 이 감동을 불자들에게 전할 방도를 찾다가 이원복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등의 교육만화를 접하고 불교만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만화로 보는 불교 이야기〉 1, 2, 3권의 글을 쓴 작가 김정빈씨(45)는 위빠사나 명상 등을 통한 수행과 태국·미얀마등의 불교성지를 순례한 체험을 바탕으로 "불교의 맛과 향기를 가능한 알기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냈다. 8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소설 〈단〉으로 유명한 김정빈씨는 "소설 수필 우화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깨달음의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림을 그린 최병용씨(44)는 "어려운 공동작업 과정에서 불교를 새롭게 배우게 됐고, 프로만화가로서도 창작활동에 중요한 계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스토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그림이 나오는 불교만화의 특성과 부처님과 고승들의 표정 연출이 가장 어려웠다"는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 개발과 섬세한 분위기 연출을 스스로 터득하게 됐고, 새로운 불교만화 작업에 대한 신심도 갖게 됐다.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4, 5권을 완간 예정. 〈재〉

새로나온 책...

▲불교민속학의 세계(홍윤식 외 지음)='불교민속'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킨다는 취지로 동국대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회장 이종찬)가 지난 94년 개최했던 '한국불교민속학의 과제와 방향' 주제의 학술회의를 비롯, 그동안 가졌던 여러차례의 토론 및 연구모임의 성과물을 책으로 엮었다. 〈집문당 9천원〉

▲광덕스님 명상언어집(광덕스님 지음)=불광사 회주 광덕스님이 월간 〈불광〉을 통해 연재해 온 글들을 계절별로 뽑아 봄 여름 가을 겨울 4권으로 엮었다. 스님은 우리의 본성생명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생명력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불광 한질 2만원〉

▲중관사상(윤종갑 옮김)=인도 중관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개괄적인 입문서이자 전문연구서. 중관불교는 원시불교와 부파불교를 섭렵·용해하여 유식불교와 밀교를 창출한 불교의 중심사상이다. 동경대 철학과 카지야마 유이치 교수 등이 쓴 〈강좌 대승불교 7·중관사상〉을 옮겼다.

〈경서원 1만2천원〉

▲중관철학(김철수 옮김)=용수(150~250)의 생애와 그의 저작, 중관학파 제자들의 사상적 영향을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다루었다. 저자는 양혜남(楊惠南) 국립대만대 철학과 교수.

〈경서원 1만2천원〉

▲강을 건넜으면 나룻배는 버리게나(홍여운 엮음)=진정 깨달은 자는 나룻배를 늘 타고서도 걸림이 없고, 나룻배를 떠나서도 걸림이 없다. 구도에 목숨을 건 선사들이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보여주는 초월의 세계를 그린 선 우화집.

〈고려문화사 6천원〉

▲소설 업보(혜범스님 지음)=소설 〈반야심경〉, 〈불꽃바람〉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의 작가 혜범스님의 장편 구도소설. 불교와 무속, 민중의식의 화합과 조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밀알 1, 2권 각 6천원〉

▲달마에서 경허까지(박영규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조선의 선승 경허에 이르기까지 40여 선사들의 흥미진진한 일화를 통해 불교를 소개했다. 〈정신세계사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2	기도	일 타	효 림
3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5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정빈·최병용	고려원미디어
6	돌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7	연선도인	백 운	우리출판사
8	사람의 길	향 봉	밀 알
9	금강경 이야기	법 륜	정 토
10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낙 한	장 경 각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중국불교사 계환스님 옮김

중국의 사회·경제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교문화사를 다룬 이찌바다 료오슈의 〈중국불교사〉가 동국대교수인 계환스님에 의해 번역됐다.

중국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학적인 연구 위에 사회적 문화적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이 책은 인도불교와는 다른 중국불교의 독자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불교 사회·문화 통사적 고찰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자 불교와 중국사상 사이에는 두가지 관계가 정립됐다. 하나는 불교사상이 중국사상의 영향으로 인도불교에는 없었던 교리상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난 점과, 하나는 중국사상이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된 사실이다. 불교전래로부터, 대만·현대중국의 불교에 이르기까지 중국불교를 통사(通史)적으로 다뤘다.

〈우리출판사 7천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한국의 석조미술'

그동안 석조미술품들에 대해 각 분야별로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 석탑, 석불, 부도, 석비, 석등, 당간지주 등에 관한 논문이나 조사보고서가 단편적으로 있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몇 권의 저술도 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석조미술품 전반에 대한 계통적인 조사 연구는 집성된 바가 없었다.

석조미술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언젠가는 석조미술의 각 분야를 총망라한 체계적인 집성작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항상 역설하면서도 그 실천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난해 출간된 진홍섭 박사의 저서 〈한국의 석조미술〉(문예출판사 刊)은 이러한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오늘날 남아있는 한국의 고대 유적 유물은 그 수효가 석조물(石造物)이 단연 으뜸이다. 이것은 이웃의 어느나라 보다도 한국에는 화강암이나 남석, 수성암 등 여러 종류의 석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全)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내외 환란을 당했던 우리로서는 목조물, 지물(紙物), 토제유물(土製遺物) 등이 재난을 겪을 때마다 거의 소실 파괴되어 그 흔적조차도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견고한 석조물 뿐이라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석조 미술품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많다. 4세기 후반 불교가 수용된 이후부터는 불교적인 조형미술품 전반에 걸쳐서 화강암이 그 조성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불교의 융성은 그 장엄에 따르는 여러 조형물의 조성을 서두르게 하였는데, 이때 다량으로 필요했을 화강암등의 석재가 어렵지 않게 충당되어 전국 방방곡곡에는 많은 석조물이 건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국 고대미술의 주류를 불교미술이 차지하게 되고 그 중심에 석조미술이 위치하게 된 것이다. 즉 석탑, 석불과 같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봉안물이 건조되었고 부도, 탑비와 같이 조상숭배에서 경영된 석조건축물이 조성되었으며, 석등, 당간지주, 석비, 노주, 석표처럼 각 사찰에서 사용하거나 홍법(弘法)에 이용하기 위한 석조물이 세워졌다. 또한 불교적인 건축물 이외에 석교, 석빙고, 석수(石獸) 등이 조성되기도 했다.

정 영 호
(교원대 박물관장)

전국곳곳 석조예술 총망라

불교미술 연구·감상 길잡이

저자 진홍섭 박사가 책의 서두에서 "한국의 석조미술품은 한국 미술작품 전체에서 상당한 양을 차지하여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특색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아름답게 표현된 석조물들은 모두 거론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듯이 이 저서에서야 비로소 한국의 석조미술이 총망라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50여년간 한국미술사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저자의 굽힐 줄 모르는 학문적 열정과 그 연구의 축적이 바로 이 대작 〈한국의 석조미술〉을 낳게 한 것이다.

진홍섭박사의 〈한국의 석조미술〉은 한국석조미술 뿐만 아니라 한국미술사·불교미술사 연구에도 다시 없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祈 기 禱 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걷히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법공양문 신국판 값 5,000원
일타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값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